

풍만수력발전소

제7진 ‘국가산업유산’ 등재… 길림성 전력 업계 최초



일전, 공업정보화부가 제7진 국가 산업유산 목록을 발표한 가운데 풍만 수력발전소가 성공적으로 등재되면서 길림성 전력 업계 최초의 국가산업유산으로 선정되었다. 국가산업유산 선정 사업은 2017년에 시작되었는데 력

사적, 과학적, 사회적, 예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업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풍만수력발전소는 1937년 건설을 시작해 1943년 첫 발전을 가동했는데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

소로 중국 전역에 기술·관리 인재를 양성, 공급하며 ‘중국 수력의 요람’으로 불렸다.

새 중국 건국 초기 풍만수력발전소의 발전용량과 전력 생산량은 동북지역 전력망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항

미원조전쟁 지원과 동북지역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3년, 중국 제1차 5개년 계획 중점 건설 프로젝트로 지정되며 전국적인 대규모 산업화를 뒷받침했다. 1950년부터 1998년까지 1·2·3차 증설을 거쳐 총설비용량이 100.25만키로와트로 도약했으며 2020년 9월 완전 재건 프로젝트 완공으로 총 148만키로와트 규모의 현대식 발전소로 재탄생했다.

지금까지 루적 발전량 1,100억키로와트를 돌파했고 18차례의 대홍수 조절로 송화강 하류 1,100만명의 안전을 지켰다. 현재 연간 표준석탄 100만톤 대체와 이산화탄소 260만톤 감축 효과를 달성중이다. 풍만수력발전소는 중앙제어실을 비롯한 핵심 유물을 보존하며 ‘전시관·공원·견학로’를 결합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 현재까지 30만명이 방문했다. 이번 선정은 발전소의 역사적 기여에 대한 인정인 동시에 산업유산 보존·활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

발전소측은 “동북지역 경제 발전에 정진적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길림일보

유명 코미디언 팍덕강, ‘경극의 제2 고향’ 홍보대사로

최근, 길림시를 방문한 유명 코미디언 팍덕강이 ‘경극의 제2 고향’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길림시문화관광국은 길림시의 경극 역사 홍보 및 경극교육기관이었던 희(부)련성사의 유산을 알리기 위해 그를 공식 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팍덕강은 송화강변에 위치한 희(부)련성경극예술공원에서 목조건축물 ‘향영대동 고극루’를 둘러보며 경극 예술의 역사적 흐름과 건축적 가치를 살펴보았다.

팍덕강은 경극박물관을 관람한 후

현지 경극전승보호센터 배우들과 교류했다. 젊은 배우들의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며 “길림은 경극의 뿌리를 보존하는 모방”이라고 평가했다.

길림시 관계자는 “희(부)련성사는 매란방, 주신방, 마련방 등 거장을 배출한 중국 경극 교육의 상징적 기관”이라며 팍덕강에 대한 위촉이 전통 예술 홍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미디언 팍덕강의 ‘경극의 제2 고향’ 대사 역할은 길림시의 경극 역사 홍보와 젊은 세대의 관심 유도를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평가된다.

/ 길림일보



〈세월의 소리〉, 길림시 새 ‘무송·빙설 시즌’ 개막 알려

—80년대 유행가부터 추억의 소품 전시까지… 260여개 행사 예고

“〈동창인 너〉부터 〈홍일〉까지 관객 모두가 기입하여 따라 불렀습니다.”

11월 8일, 길림시인민대극장에서 열린 〈세월의 소리〉(岁月同声) 공연은 2025—2026 길림시 ‘무송·빙설 시즌’의 정채로운 16주 행사의 서막을 화려하게 알렸다.

이번 공연은 길림시가무단 창작실상준 감독의 기획 아래 1980년대 이후의 대표곡, 시대적 정서를 재현

한 무대 디자인, 관객 참여형 게임 등을 결합한 ‘추억+정춘’을 주제로 했다.

공연장 입구에는 옛날 자전거, 재봉틀, 난로 등 20세기 생활 소품들이 전시되어 관객들의 SNS 인증샷 열기를 이끌었다.

‘초록시절’, ‘불타오르던 날들’, ‘사랑은 귀로’, ‘잊을 수 없는 세월’ 등 총 4개 부분으로 구성된 공연에서 〈고

향의 구름〉, 〈넓은 바다 같은 세상〉, 〈천천의 노래〉 등 12수의 시대를 초월한 히트곡이 연이어 무대에 오르며 전 세대의 공감을 자아냈다. 관객들은 형광봉을 흔들며 합창하는 등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길림시는 2026년 2월까지 문화·상업·농업·관광·스포츠 분야 260개 이상의 행사를 펼치는 것으로 ‘슈퍼주말’을 지속

적으로 구축해나가고 겨울철 소비와 문화관광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길림시인민대극장도 이에 동조, ‘무송·빙설 공연 시즌’을 출범시켜 주말 공연이 있고 날마다 다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한편, 길림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 길림일보

길림화공학원 길림화공대학으로 개명
풍만캠퍼스도 동시 개교

—67년 력사의 길림 화공학원, 이제 ‘대학’으로 도약

현대식 캠퍼스로 교육, 연구 역량 강화

11월 5일, 길림화공대학(원 길림화공학원) 개교식 및 고품질 발전 대회가 새로 건설된 길림화공대학 풍만캠퍼스 체육관에서 성대히 열렸다. 이로써 67년의 교육 력사를 가진 이 학교는 공식적으로 ‘대학’ 시대에 진입했다. 따라서 학교 발전의 공간적 한계를 해결한 풍만캠퍼스도 정식 문을 열었다.

‘대학’으로의 도약, 풍만캠퍼스 개교로 새 력사 시작

이번에 개교한 풍만캠퍼스는 학교의 공간적 제약 해결과 고품질 발전을 위한 전략적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

애학총 교장은 “3년여의 건설 과정을 거쳐 완성된 이 캠퍼스는 교육, 연구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전공간의 융합과 지방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서 학교 발전기획처 관계자와 동문, 재학생 대표가 각각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개명 및 캠퍼스 건설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표창했다.

새로운 출발, 더 큰 도약 약속

5일, 길림화공대학은 개명 및 새 캠퍼스 개교 동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길림화공대학 당위 장명요 서기와 애학총 교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및 동문 대표들이 함께 ‘길림화공대학’ 현판을 공개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장명요 서기는 축사에서 “67년간의 어려운 창업 과정을 거쳐 수 많은 ‘화공학원사람(化院人)’들의 꿈을 이뤘다.”며 “‘12.5’계획부터 ‘14.5’계획까지의 노력이 오늘의 력사적 도약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 길림일보

길림경제개발구와 량가자간 송전 선로
안정 운행… 지역 전력 공급망 강화

—‘14.5’계획 중점 전력 공급 프로젝트 완공, 지역 경제 발전에 탄력

최근, 길림경제개발구 도시건설판공실과 길림전력공사는 길림경제개발구와 량가자간 66키로볼트 송전선로 신설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주 기초, 전선금구(导线金具), 절연체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최적의 전력 공급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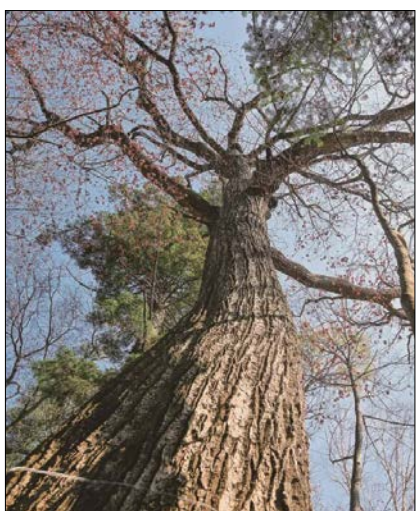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중국 ‘14.5’계획의 중점 전력 공급 프로젝트로 지난 4월 공사를 시작해 9월 6일에 성공적으로 준공 및 운행에 들어갔다.

/ 길림일보

건설 기간 동안 230명 작업일꾼들이 146일간의 노력으로 2개 변전소 확장, 110개 전주 설치, 22.7키로메터 전선 가설 등 주요 공사를 완료했다. 프로젝트 운행으로 두 변전소에 각각 66키로볼트 인입선 1회선이 추가되어 약 2만 6,400가구의 정전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지역 전력망의 빙설재해 대응 능력과 공급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다.

이 송전 선로의 안정적 운행은 길림시 북부지역 전력망 구조를 더욱 완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기업 생산에 든든한 전력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의 산업 업그레이드 및 고품질 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으며 안정적 전력 공급의 기반을 다졌다.

화전, 혁명정신 계승·생태홍색관광 융합 신모델 구축



위증민 순국지 주변에 보호 수종으로 지정된 고목

길림성 장백산 기슭에 위치한 화전시 자피거우진 목단령의 깊은 숲속, 소이도하자 강가의 소나무들이 단아한 비석을 감싸고 있다. 이곳은 동북항일련군 제1로군 부사령원이자 중

공남만성위 서기인 위증민(魏拯民) 장군의 순국지이다. 80여년전 32세의 장군은 ‘혁명의 붉은 기발이 전 중국에 휘날릴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고 립해설원에 영면했다.

항일영웅의 발자취

위증민(본명 관우위)은 16세 때 태원제1중학교 진학후 팽진의 영향으로 혁명에 투신했으며 1927년 18세에 중국공산당에 가입했다. 1932년 할빈시당위 조직부장을 거쳐 1935년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정치위원을 겸임했다. 1937년 양정우와 함께 근 1년간의 행군을 거쳐 로령에서 회사하고 ‘로령회의’를 사회했으며 항일련군 부사령원으로 활약했으나 1941년 심장병과 위궤양 악화로 32세에 순국했다. 당시 그는 자작 정치교재로 병사들을 교육했으며 먹을 것이 떨어지자 나무뿌리와 나무껍질을 먹으며 항

일정신을 보여주었다.

‘붉은 유산+푸른 생태’

현재 화전시는 67%의 삼림피복률을 자랑하며 조대계산, 홍석 국가급 삼림공원과 백산호, 홍석호, 송화호 ‘3대 호수’가 련결된 생태 명소가 있다. 특히 시내에는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유적 70곳(각각 47곳, 23곳)이 보존되어있으며 16곳이 ‘길림성 동북항일련군 유적 목록’에 등재되었다. 호자호(蒿子湖) 항일련군밀영 등은 핵심 홍색관광지로 부상중이다.

유적 보전, 활용 가속화

2023년부터 화전시문물국은 13개 향진과 ‘문물안전책임서’를 체결, 63곳의 보호 비석을 정비하고 4곳을 신설했다. 호자호비밀기지에 4,000만 원을 투입해 기념관(1,800평방미터),

조각군 등을 조성했으며 개관 9년간 루적 관광객 연 28만 7,600명을 접대했다.

화전시박물관은 ‘화전에서의 동북항일련군’ 전시관을 신설했는데 연간 8만명이 방문하며 ‘홍색이야기 6대 진입’ 캠페인으로 교양 효과를 확대 중이다.

생태와 력사 융합의 관광 코스 개척

화전시는 위증민 순국지—호자호 구간에 8개 안내판과 14개 방향표를 설치하고 3개 휴식구역을 마련해 접근성을 높였다. 최근에는 항일 농민화 50여점을 전국 홍색관광 문화창의 공모에 출품하는 등 혁명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송화강 생태계관과 결합된 ‘홍색+친환경’ 관광 코스는 연간 10% 이상 관광객 증가를 이끌고 있다. / 길림일보